

“왜 사느냐? 나에게도 숙제!”

‘왜 사냐?’... 그렇게 묻거든, 당신은 무어라 답하겠는가. 배우 공유(42)가 묻는다. 그 역시 답을 찾기 위해 나섰다. 15일 극장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을 통해 동시 공개하는 영화 '서복'(감독 이용주·제작 STUDIO101)에서 새롭게 연기를 펼친 이유이기도 하다.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과, 모종의 음모에 휘말린 그를 지키려 위험에 맞서는 전직 정보요원의 이야기. 박보검이 서복 역을 맡아 연기하는 동안 공유는 과거가 남긴 생채기에 아파하며 삶의 질박함에 빠져든다. 영화는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으면서, 하지만 또 그만 끝없는 탐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며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유는 “왜 사느냐?”라는 물음이라고 했다. “복제인간이라는 소재와 그 물음이 섞여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했다”는 그는 ‘특’ 건네진 질문에 “당황하고 답하지 못할까 고민하며 겁을 냈다”고 털어놓았다. 출연 제안을 거절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 하지만 또 그만큼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 “그 누가 죽음 앞에서 용감할 수 있을까. 극중 서복이 ‘당신은 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공유는 그동안 과정을 돌아봤다.

극중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는 힘겨움을 드러내는, 쑥 빠진 볼살도 고민의 깊이를 말해준다. 식단조절로 4kg의 몸무게를 줄여 “깡통 이미지”를 선보이려던 과정은 그러나 ‘배우’로서 공유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살을 빼는 과정이 자신에게 “그리 어려운 일 같지는 않다”면서 “작품을 하며 힘겨움을 잊고 즐기는 작업이 재미있다”고 자부했다.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지만 늘 탐욕에 허우적대는 사람들 복제인간 통해 인간의 삶 반성 식단조절로 4kg 빼... 켈 하죠?



그래도 인위적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그는 대신 이야기의 새로움에서 또 다른 흥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모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잘 가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어려워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유는 ‘서복’의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끝내, ‘왜 사느냐?’는 물음의 답을 찾았을까.

“아직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지나간 과거에도 허우적대는 사람이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할 거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영화의 이야기에 소중함을 더했던 그는 욕심도 내비치지 않았다. “연출자도, 배우도 모두 후회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작품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달게 받겠다”는 다짐도 거머쥐어 나온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왜 사냐?”... 어느 시인은 그저 “웃지요”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배우 공유는 “영화 ‘서복’에서 시한부를 선고받은 전직 정보요원을 연기하려고 식단조절로 4kg가량을 조절했다”며 “작품을 위해 힘겨움을 잊고 즐기는 작업이 즐겁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매니지먼트 스타

연예뉴스 HOT 5

봉준호 감독, 미 아카데미상 시상자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는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다. 13일(한국시간) 미국 연예 전문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진은 시상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역사를 만든 봉 감독이 2021년 오스카상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미나리’는 작품, 감독, 남우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시상식 측에서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과 한예리에게 참석을 요청했고, ‘미나리’ 출연진은 봉 감독과 함께 오스카 무대를 빛낼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아이, 해체 4년 만에 다시 뭉친다



아이오아이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이(Ayoa)가 데뷔 5주년을 기념해 해체 4년 만에 다시 뭉친다. 13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오아이는 데뷔일인 5월4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강미나와 현재 중국에 있는 주결경은 아쉽게 불참한다. 전소미, 김세정, 최유정, 김청하, 김소혜, 주결경, 정재연, 김도연, 강미나, 임나영, 유연정으로 구성된 아이오아이는 2016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1년 간 활동하다 해체했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6000만명 돌파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6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저스틴 비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1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이날 오전 6시 6000만명을 넘겼다. 여자 아티스트가 구독자 6000만명을 달성한 것은 세계에서 블랙핑크가 최다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확보한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이후 에미넴, 에드 시런, DJ 마시멜로를 넘쳤고 현재 비버(6200만명)만을 남겨뒀다.

스윙스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자 1000명 늘어



스윙스

래퍼 스윙스(문지훈)가 장기기증에 서약하자 동참자가 1000명이 늘어났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는 13일 “스윙스가 SNS에 희망등록 사실을 인증한 뒤 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사람이 3일 동안 무려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대비 무려 600% 늘어난 수치로, 특히 10대 서약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윙스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스윙스는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공개했다.

홍은희 코로나 음성...자가격리도 ‘광자매’ 결방



홍은희

연기자 홍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주연하는 KBS 2TV 주말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의 촬영이 중단됐다. 13일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진의 안전을 위해 촬영을 일시 중단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은희는 메이크업 스태프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17일과 18일 결방하고 10회까지 내용을 요약한 스페셜 방송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역돌’,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정용화·강민혁 나란히 수목극 출연 차학연 ‘마인’·박형식 ‘잠중록’ 주연

‘전역돌’이 안방극장으로 대거 돌아온다.

씨엔블루의 정용화·강민혁·이정신과 빅스의 차학연(엔), B1A4 진영 등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들이 전역 직후 신작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폭넓은 시청층의 눈도장을 받으면서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있는 안방극장을 복귀 무대로 선택했다.

씨엔블루의 세 멤버가 가장 눈길을 끈다. 멤버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주연 드라마를 내놓으면서 시청률 경쟁을 벌

인다.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전역한 정용화와 강민혁은 14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대박부동산’과 현재 방송 중인 MBC ‘오! 주인님’의 주연을 맡았다. 같은 수목 드라마로 정면 대결하지만, 저마다 판타지와 로맨스 장르의 매력을 부각시켜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정신도 지난달 30일 공개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즌의 드라마 ‘썸머가이즈’의 주연으로 나서 오랜 만에 시청자를 만났다.

작년 10월 제대한 차학연과 9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 진영은 최근 연기자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51k와 비비엔터테인먼트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들



정용화

강민혁

차학연

박형식

통해 연기자로서 새롭게 입지를 다지겠다는 이들은 쉬지 않고 출연 드라마를 결정했다.

차학연은 7일 방송한 tvN 단막극 ‘더 페어’에 이어 5월 방영할 ‘마인’에 출연한다.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진영은 8월 KBS 2TV ‘폴리

스아카데미’의 주연으로 나설 예정이다. 제국의아이들 출신으로 일찌감치 연기자 행보를 걸어온 박형식도 1월 전역하자마자 방송가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집필한 정현정 작가의 신작인 tvN ‘잠중록’의 주인공으로 출연할 전망이다.

서예지 “김정현 조종·학폭 사실 아냐”

김정현과 과거 열애 사실만 인정 ‘내일의 기억’ 시사회 갑자기 불참

연기자 서예지가 최근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등 각종 구설에 휩싸인 김정현과 과거 열애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정현이 2018년 MBC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할 당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정현 측과 확인 결과, 드라마 판



서예지

권 논란이 서예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정현이 2018년 주연을 맡았던 MBC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서현과 스킨십을 거부하고, 촬영 도중 하차한 것이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의 요구였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김정현도 다른 드라마를 촬영 중이던 서예지에 키스 신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타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연인 간의 질투 섞인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김정현의 태도 논란에 관해서는 “드라마의 주연 연기자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지 없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정현에 필시 다른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연예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미성숙한 감정으로 많은 분들에 심리를 끼쳐드린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또 서예지의 학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또 학교 폭력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